

새 회장에게 바라는 희망

Wish on the New President



최동규 | Choi, Dong-kyu, KIRA
(주)서인 종합건축사사무소

약력

- 한양대학교 건축과 및 동대학 산업대학원 졸업
- 본지 편찬위원회 위원장

임기 2년의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체제가 2011년 3월이면 새로이 출범하게 된다. 많은 건축사들은 솔직하게 회장이 누가 될지 어떤 방식으로 선출하는지 잘 모를 것이다. 필자도 편찬위원장으로 봉사하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도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선거 출마후보 신상에는 다들 관심이 막중한데 막상 우리 건축사들에게 중요한 단체장 선거에는 왜 이리 무심할까? 아마도 전국에 있는 대의원 446명에 의해서만 선출되는 독특한 선거방식 때문에 많은 건축사들의 관심사에서 떨어진 것은 아닐까 생각한다. 건축사협회 회원으로 있는 개업건축사가 8,181명이란니 5.5%의 대의원이 8,000여 건축사의 의중을 대표하여 선거에 임하는 것이다. 40여 년 간 연속된 이러한 선출방법도 차 차기 회장선거 때부터는 전국에 있는 건축사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회장이 임기 중에 역점을 두었던 것이 무엇인가 알아보았다. 희미해진 건축사협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인정받은 것과 오랜 숙원이던 건축사협회 공제조합의 발족이라고 들었다. 건축사협회가 임의단체로 되어 미가입 건축사들도 많은데 명실공히 건축사에게 이익이 되는 단체로 다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이번 공제조합의 신설로 되었으면 하는 희망도 들었다.

또 현 협회 이사에게 신임회장이 해주었으면 하는 희망을 들어보았다.

역시 공제조합의 활성화로 생기는 이익발생이 많은 건축사들에게 약간의 혜택이라도 가게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건축물유지관리 제도를 법제화하여 건축물의 생성단계에서부터 멸실 과정까지 건축사가 간여하여 국민의 생명을 의료보험에서 관리하듯이 건물의 건강도 건축사가 관여하는 제도설립의 희망을 들었다. 이것을 통하여 17,000명이나 되는 건축사가 업무영역의 확대로 설계 이외의 할 일이 생겨나는 것이다. 이 제도의 확립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한다.

또 여태껏 건축사협회가 국토해양부에 소속되어 건설 산업의 일부로 인식되어온 설계업무가 문화 또 나아가 지식산업으로 인정받아야만 국가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건설 산업은 해외수주로 인해 국민들의 박수도 받고 국가의 지원도 받는데, 설계업무야말로 소프트웨어 산업으로 인정받아 당당하게 지식산업에 속한 이미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일본만 해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인정하는 프리즈커 상 수상자 리스트에 벌써 몇 명의 일본건축가가 올라 있지 않은가?

가장 강력한 해결이 필요한 주제들은 이미 「건축사」지 500호 특집에 게재된 주제로서 협회창립 후 40여 년간 괄목할만하게 변하지 않은 설계경기제도 개선(발주제도개선)으로, 실력 있는 건축사가 등장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야말로 건축계의 양극화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라 신임회장이 끈질기게 해결하고 나아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한다. 같은 중요성으로 공동기획주제인 공공건물의 감리에 설계자가 참여할 수 없는 현 제도를 조금이나마 타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사후설계관리 제도도 올해에는 안착시키고 활성화 하여 설계자가 정당하게 현장에 나가 디자인을 관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하겠다. 결국 위에 언급된 몇 가지 주제들은 이미 희망적으로 진행 중이다. 다만 발주제도개선 및 감리제도개선 등이 결코 쉽게 이루어지기 힘든 것들이라 회장뿐 아니라 협회차원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아주 집요하고 조직적으로 다루어야만 승산이 있는 것으로 언제 성취될지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다.

신임회장의 임기동안 또 다른 변화로 조금이나마 살만한 건축계가 되었으면 하고 그 선두에 서게 될 신임 대한건축사협회 회장의 역주를 기대해본다. ■